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21’ 4편 공개... 세계 첫 상영

임흥순 감독 ‘포옹’·에릭 보들레르 감독 ‘입속의 꽃잎’ 등 조직위 ‘지속해서 다양한 목소리 담은 저예산 영화 지원’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려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섹션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21’ 4편이 공개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2회 영화제 상영작 중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작품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국내외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장편 극영화 또는 다큐멘터리를 선정해 직접 제작·투자한 후 완성작을 전 세계 최초로 소개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섹션이다. 올해는 한국과 해외 작품 각각 2편씩으로, 민환기 감독의 ‘노화찬, 6411’과 임흥순 감독의 ‘포옹’, 테드 펜트 감독의 ‘아웃사이드 노이즈’, 에릭 보들레르 감독의 ‘입 속의 꽃잎’ 등 모두 4편이다. 첫 번째 민환기 감독의 ‘노화찬, 6411’은 진보 정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일생을 바친 고(故) 노화찬 의원이 일관되게 추구한 신념과 철학을 주제로 삼은 다큐멘터리다. 명필름과 노화찬재단이 공동 제작했으며,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이야기’(2009)로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에서 심사위원 특별언급을 받은 민 감독의 독특

한 시선과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다른 한국 영화 ‘포옹’은 한국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위로공단’(2014)을 비롯해 ‘려행’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등을 연출하고 미술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흥순 감독의 신작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됐다’는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영화인들의 모습과 꿈 속 이미지를 교차해 보여주는 독특하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드 펜트 감독의 ‘아웃사이드 노이즈’는 네 번째 장편 영화로 2019년 제11회 전주프로젝트에서 피칭을 통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제작·투자지원에 최종 선정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비주얼 아티스트 에릭 보들레르 감독의 ‘입 속의 꽃잎’은 픽션과 관찰 다큐멘터리가 혼재된 독특한 형식을 보여준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올해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담아내거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반영한 작품, 실험적이고 미학적인 영상 세계를 보여주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섹션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21’ 4편이 공개됐다. ‘포옹’(위), ‘입속의 꽃잎’.

는 작품까지 전주국제영화제와 결을 같이 하는 다채로운 작품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대형 영화가 주목받고 이야기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보일 수 있도록 전혀 다른 색깔의 영화를 준비했다”면서 “전주시네마프로

젝트는 저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술적 야망은 여느 영화 못지않은 영화들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는 계속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권순우, 이탈리아 비엘라첼린저 우승 올해 들어 개인 통산 3번째 1위 쾌거

세계랭킹 81위 예상

권순우(24당진시청97위)가 남자프로 테니스(ATP) 비엘라 첼린저 2차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권순우는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비엘라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로렌초 무세티(이탈리아·122위)를 2-0(6-2 6-3)으로 물리쳤다. 그가 첼린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9년 3월 요코하마 게이오 첼린저, 같은해 5월 서울오픈 첼린저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다. 첼린저 대회는 투어보다 한 단계 낮은 대회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125점을 획득한 권순우는 22일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81위 정도에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우는 싱가포르로 이동해 ATP 투



권순우(97위)가 9일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나시코키카키스(266위·호주)와 경기하고 있다.

어 싱가포르오픈에 출전한다. 권순우는 싱가포르오픈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슨 콰이엇카우스키(미국·217위)와 맞붙는다. 권순우는 지난해 US오픈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콰이엇카우스키를 3-1(3-6 7-6(7-4) 6-1 6-2)로 물리친 바 있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류현진, 작년보다 몸 더 좋아져” 토론토 투수코치, 긍정적 전망

시범경기 통해 컨디션 점검 2021시즌 개막 맞이할 예정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4)이 순조롭게 시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토론토 투수 코치도 그런 류현진을 흠뻑하게 바라보고 있다. 피트 위커 토론토 투수코치는 22일(한국시간) 현지 매체들과 한 화상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비시즌에 훈련을 열심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시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위커 코치는 “지난해보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며 “이미 불펜 피칭에서 50개의 공을 던질 만큼 몸 상태가 좋다”고 류현진을 치켜세웠다. 지난해 토론토에서의 첫 시즌을 마친 뒤 10월 한국에 돌아온 류현진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훈련에 돌입했다. 올해 1월에는 따뜻한 제주도로 떠나 캐치볼을 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겨우내 훈련을 착실히 소화한 그는 이달 3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팀의 스프링 캠프 첫날인 18일에는 불펜 피칭에서 50개의 공을 던지며 예열을 시작했다. 2021시즌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류현진은 시범경기를 통해 컨디션을 점검하고 개막을 맞을 예정이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18일 미국 플로리다 주 더니든 훈련 시설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토론토는 3월 1일 뉴욕 양키스전을 시작으로 시범경기를 출발한다. 정규시즌 개막은 4월 2일 뉴욕 양키스전이다. 한편, 류현진은 캠프 합류 후 현지 인터뷰를 통해 “겨울 동안 휴식도 취하고 충분히 몸도 만들었다”며 “매 경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생각이다. 특별히 (토론토에서) 두 번째 해라고 할 해야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여자)아이들 수진 “학폭 의혹 억울... 서신애와 대화한 적 없어”

소속사도 “학폭 전허사실 아니다” 의혹 극구 부인

그들 ‘(여자)아이들’의 멤버 수진이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수진은 22일 소속사 팬 커뮤니티인 유큐브에 글을 올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서신애 배우님과는 학창시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 이분께도 이 일로 피해가 간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수진은 “저는 학창시절 눈에 띄는 아이였고 나쁜 소문이 따라다닌 것도 맞다.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몇 번 피우는 것”이라며 “어린시절 방황을 했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제가 고치고 나아졌다 하더라도 결국 모두 저의 부끄럽고 죄송한 행동이 분명히 있었기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 늘 나쁜 소문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

만. 많은 팬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으면 한다”며 “기억나는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진은 “글을 올린 친구와는 저는 정말 친구였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의 집에서 밥을 먹은 기억도 그 친구의 언니와 셋이 영화를 본 기억도 있다. 글을 올린 언니는 제가 학교 선배한테 협박문자를 받고 힘들어할 때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줬던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언니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왜 멀리하려고 했는지 그 글을 통해 알았다. 제가 기억하는 그 다툼의 이유는 그 친구가 약속을 어겨서였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는 화가 났던 걸로 기억한다. 저를 멀리하려고 했던 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제가 너



(여자)아이들 수진

무 부끄럽지만 그 친구한테 욕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 언니가 전화를 받았고 언니는 저를 혼내셨다. 그리고 저는 그 언니께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그 이후로 그 친구와는 완전히 멀어졌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대만 인기드라마 ‘상견니’ 한국판 제작한다

대만 지상파 방송 시청률 12주간 동시간대 1위 기록

대만 인기 드라마 ‘상견니’의 한국판이 제작된다. 기획사 엔피오엔터테인먼트와 리안컨텐츠가 “대만 폭스네트웍그룹, 산판제작의 대만 인기 드라마 ‘상견니’의 리메이크 관련 계약을 완료하고, 한국판 제작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상견니’는 남자친구 왕위안성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를 그리워

하는 황위시안이 우연히 선물 받은 휴대용 카세트통을 통해 1998년으로 돌아가 왕위안성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리즈웨이를 만나며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대만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간기봉과 임흔해가 공동 집필하고 황천인 감독이 연출했다. ‘상견니’는 2019년 11월 대만 지상파 중시(CTV) 방송 당시, 25~49세 여성 대상 평균 시청률 4.16%로 8년간 방송된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과 12주간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대만 폭스네트웍그룹 스타차이나니스채널(SCC) 방영시 최종화는 25세부터 49세 여성 최고 평균시청

률 1.01%로, 전체 평균시청률은 SCC 13년간 드라마 최고 시청률 돌파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 인기를 모은 ‘상견니’는 해외 드라마 중 유일하게 한국의 모든 OTT에 들어간 화제작으로 국내 업계와 팬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4월 케이블 TV 채널 WeLike를 통해 전파를 뒀고, 웨이브 방송 당시 아시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상견니’의 한국 리메이크 관련 확보를 위해 한국 굴지의 방송사와 유수 드라마 제작사들이 판권 계약에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대만 드라마 ‘상견니’ 포스터

프로축구 제주, 측면 수비수 안현범 재계약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가 측면 수비수 안현범(27)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울산 현대에서 프로 데뷔한 안현범은 2016년 제주로 이적해 첫 시즌 K리그1 28경기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다. 또 2017시즌에도 27경기에서 2골 2도움으로 제주의 K리그1 준우승에 기여했다. 이후 아산 무궁화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안현범은 강등의 아픔을 겪

었지만, 지난해 K리그2 22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제주의 승격을 이끈 뒤 시즌 베스트11에 뽑혔다. 제주 구단은 “안현범은 리그 정상급 측면 수비수”라면서 “지난해부터 두 시즌 연속 부주장을 맡으며 코치진과 선수단 사이의 가교 역할까지 도맡았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남기일 감독도 “안현범의 재계약은 새로운 영입과 같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